

시·소설 속 좋은 글 온라인 배달 '호평'

2006년부터 목요일 배달 '문학집배원' 이달부터 김행숙·이기호 작가 글 선정 영상·일러스트레이션에 감상평도

매주 수요일 진행 '문장의 소리' 작가 생생한 목소리 인터넷 라디오방송 진행·연출·구성작가 모두 문인들



김행숙 시인 이기호 작가



시와 소설 속 좋은 글을 발췌해 온라인으로 배달 해주는 서비스가 '호평'을 받고 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운영해오고 있는 사이버문학광장(www.munjang.or.kr) '문학집배원'과 작가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문장의 소리'가 그것. 온라인 서비스는 독자들이 문학을 좀 더 쉽고 가깝게 만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먼저 지난 2006년부터 진행된 문학집배원은 시와 소설 속 문장을 발췌해 이메일로 보내준다. 지난 4월부터는 문학집배원으로 김행숙 시인과 이기호 소설가가 활동한다. 매주 목요일 두 문인이 번갈아가며 선정된 문장을 전문 성우가 내레이션으로 들려준다. 김행숙 시인은 시를, 이기호 작가는 소설 가운데서 문장을 택한다. 선택된 시나 문장은 일러스트가 포함된 짧은 영상과 함께 온라인으로 제공되며 작가의 감상평도 담겨 있다.

역대 문학집배원으로 도종환·안도현·나희덕·문태준 시인과 성석제·김연수·은희경·김애란 작가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저마다 자신만의 문학적 성취를 이룬 문인들로, 독자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다.

최근에는 문학집배원을 통해 김행숙 시인이 선정한 송찬호 시인의 '눈사람'을 감상할 수 있다. 일러스트, 영상과 함께 전문 성우의 음성을 통해 전달되는 작품은 책으로 읽을 때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를 환기한다.

"내가 시간에 쫓겨 험레벌떡 열차에 뛰어올랐을

때/ 내 옆자리 창가에/ 눈사람이 앉아 있었다./ 찌는 듯한 한여름인데도 눈사람은 더워 보이지 않았다/ 겨울에 보았던 모습 그대로/ 털모자를 쓰고 목도리를 두르고 있었다/ 맘도 흘러지 않았다// 눈사람의 모습은 뭐랄까./ 기나긴 겨울전쟁에서 패하고/ 간신히 그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상이군인 같았다..."('눈사람' 중)

영상의 마지막에는 시인의 감상편이 짝막하게 덧붙여져 있다. 한여름의 '눈사람'은 세상이라는 겨울의 전쟁에서 패한 사람의 모습으로 환기된다. 김행숙 시인은 이렇게 말한다.

"한여름 밤 열차는 자정을 향해 끝없이 달리고 있었다. 내 옆자리 창가에는 털모자를 쓰고 목도리까지 두른 겨울 눈사람이 앉아 있었다. 찌는 듯한 여름이었는데 눈사람은 얼음한 겨울에 갇힌 채 어느 계절로도 흘러가지 않았다. 겨울전쟁에서 패하고 그는 생의 어떤 변천 가능성도 몽땅 불수당하고 그 자리에서 그대로 얼어버렸다."

그러면서 시인은 "밤의 창문에서 나는 이따금 겨울 전장에서 다친 그 눈사람을 다시 만난다"며 "검은 겨울은 그렇게 그를 내게로 돌려보낸다"고 덧붙인다.

그러면 온라인으로 영상과 함께 보는 시와 문장은 종이책이 주는 것과는 다른 감동을 선사한다. 영상과 일러스트레이션, 그리고 음성이라는 시각과 청각의 결합은 상상의 공간을 무한대로 확장해 준다.

문학집배원의 시와 문장 배달은 사이버문학광장 누리집에서 메일링 신청을 통해 구독할 수 있다. 또한 메일링 서비스 외에 사이버문학광장 누리집, 네이버 오디오클럽, 유튜브 문장 채널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다.

직장인 김미자 씨는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좋아하는 시를 감상하다 보면 문학적 감수성을 충전할 수 있다"며 "특히 작품과 어울리는 영상도 함께 볼 수 있어 낯선 곳으로 여행을 온 듯한 기분이 든다"고 말했다.

아울러 매주 수요일에는 작가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는 '문장의 소리'를 만날 수 있다. 문인들이 직접 기획 및 제작하는 문학 라디오로, 사이버문학광장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라디오 방송이다. 지난 2005년부터 문학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진행, 연출, 구성작가 모두 문인들이다.

최근에 제작된 '문장의 소리' (609회)부터는 시인 박소란이 연출하고 소설가 최진영이 진행하며 시인 방수진과 소설가 정선임이 구성작가로 참여한다. 지난주 610회 1부에서는 김혜진 소설가의 신간 '불과 나의 자서전'을 중심으로 작품 활동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졌다. 2부에서는 김유태·이병철 시인이 낚시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줬다.

'문장의 소리'는 매주 수요일 사이버문학광장 누리집과 네이버 오디오 클럽, 유튜브 문장 채널에서 만나볼 수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남도국악원 금요국악공감 '씻김굿'으로 문 연다

24일 첫 공연 온라인 생중계

코로나19로 미뤄졌던 국립남도국악원의 금요국악공감 무대가 막을 올린다.

이번 공연은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는 동시에 더 많은 관객들에게 안전한 공연관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된다.

생중계는 24일 오후 7시에 국악방송 유튜브 채널과 페이스북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관람할 수 있다.

남도국악원 국악연주단이 무대에 오르며, 촬영은 지난 1월 개국한 국악방송TV가 담당한다.

'씻김굿'은 망자(亡者)의 넋을 위로하고자 전라도 지역에서 행해져 온 것으로, 가족과 마을의 평화를 기원하는 공동체적 축제의 의미를 담고 있

다. 국악원은 코로나19로 침체한 사회 분위기와 경직된 문화예술계에 활력을 불어 넣고 모두의 마음을 모아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아 '씻김굿'을 첫 개막공연으로 선정했다.

이번 공연은 초기망석, 손긋 쳐올리기, 제석굿, 낮올리기, 희설, 씻김, 고평이, 김닭음, 액막음 등 진도씻김굿의 예술적 정수가 담겨있는 대표 브랜드 공연이다.

공연 종료 후 관객들에게 제공했던 음복떡 나눔 대신, 이번 공연에서는 안방에서 공연을 관람한 관객들 중 인스타그램에 인증샷을 올린 관객을 추첨해 10명에게 커피 쿠폰을 제공한다. 녹화 편집본은 5월 중 국악방송TV 채널에서 다시 볼 수 있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지난해 열린 '씻김굿' 공연 모습.

<국립남도국악원 제공>

국립아시아문화전당 'ACC 대학생 기자단' 모집

26일까지 4개 분야 40명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이 '제13기 ACC 대학생 기자단'을 모집한다.

글·사진, 영상, 누리소통망(SNS), 해외 등 총 4개 분야로 모집 인원은 모두 40명이다.

글·사진 기자단은 기사 작성과 사진 촬영을 전담하며 영상 분야는 영상 콘텐츠 제작·제작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누리소통망(SNS) 기자단은 ACC 관련 SNS 콘텐츠를 제작하며, 해외 분야는 국내 거주 외국인 유학생과 해외 거주 한국인 대학

(원)생으로 구성해 운영한다. 활동기간은 5월부터 12월까지이며 매달 일정 활동사례비와 홍보 역량교육, ACC 기자단 기자증과 명함 등 혜택을 제공 받는다.

우수 기자로 선발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상을 수여한다.

희망자는 오는 26일 오후 2시까지 자유 양식의 지원서와 분야별 과제물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ACC는 제출서류와 과제물 평가를 거쳐 합격자를 29일 ACC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

전남문화관광재단, '행복문화지소' 사업 확대

17개 군 수요조사 올 4개 군 선정

전남문화관광재단은 지난해 시범적으로 담양과 장흥 두 곳에서 '행복전남문화지소' 사업을 진행했다. 군단위 문화예술교육 거점 공간 조성, 문화향유 기회 제공을 위한 전남형 문화예술교육 기반 구축사업이었다.

재단은 두 곳에서 진행된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사업을 확장한다. 오는 29일까지 도내 17개 군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최종 4개 군을 선정한다. 올해부터 선정된 '문화지소'는 매년 성과평가를 통해 최대 3년 동안 지원할 예정이다. 문화지소의 역할은 ▲군단위 지자체 중장기 문

화예술교육 계획 수립 ▲지역 내 문화 활동가들의 협력 및 네트워킹 중심 역할 담당 ▲지역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설계 및 운영 ▲지역 내 문화예술 단체의 중앙 및 도 공모사업 응모 지원 등이다.

또 문화예술전문 코디네이터를 배치해 해당 군의 문화예술교육을 총괄하게 하며 최근 증가하고 있는 퇴직자, 귀농·귀촌인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도 적극 개발, 문화예술에 재능이 있는 퇴직자, 귀농·귀촌인들이 '문화지소'를 통해 그들의 재능을 지역민에게 나눌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지난해 문을 연 담양문화지소.

전남대 국어문화원 '우리말 가꿈이' 뽑아오

전남대학교 국어문화원(원장 손희하·국어국문학과 교수)이 '2020년 우리말 가꿈이'를 모집한다.

'우리말 가꿈이' 활동은 우리말에 대한 관심과 아울러 바로고 고운 우리말을 가꾸고 인식하기 위해 마련했다. 우리말과 글을 사랑하고, 한글에 대한 열정을 가진 대학생, 청소년, 일반인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우리말 가꿈이'로 선정되면 연 2회 우리말 가꿈

이 단체장이 지급되며 봉사 활동 시간도 인정된다. 또한 '우리말 가꿈이 임명장 및 수료증'을 발급하며 우수 가꿈이로 선정되면 문화체육부장관상, 전국국어문화원연합회장상이 주어진다.

접수 기간은 오는 5월 2일까지이며 활동은 12월까지다.

자세한 사항은 전남대학교 국어문화원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문화원에 문의하면 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개업·성업 안내

광주일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업무국 ☎ 062.220-0551



퀵타로카드
지하철 금남로57역 4번출구앞(신한은행앞)
궁합, 사주, 신수, 취직운, 택일, 격명, 운수판단, 인생상담
타로마스터 ☎ 010-3640-6429

신신예술의집
동구 공동 예술의거리
기념품 전문 판매점
대표 서태석 ☎ 062)222-1936

만福당
동구 제봉로 184번길 5-9 (대인시장내)
골동품, 석물, 도자기, 민속품, 고가구
미술품 매도·매입합니다.
찾는 물품을 찾아드립니다.
☎ 062)959-0680, 010-4602-0680

동양철학원
동구 불로동 11-2 (평화시장옆길)
사주, 격명, 개명, 신수, 궁합
택일, 개인지도함.
☎ 062)224-7687, 010-2611-7687

국수나무 광주용봉점 (비엔날레)
북구 용봉동 1091-4(M-타워KB국민은행건물)
모든 메뉴 포장 및 배달가능
직접 전화 및 배달주문(배달의민족, 오기요)
☎ 062)526-5475, 010-8621-5959

남문냉동
나주시 이창동 풍물시장2길 5-4
저온저장고제작수리, 영업용 냉동·냉동수리
에어컨 전문설치
☎ 061)333-2779, 010-3610-2779

무크광주세정점
서구 상무대로 773, 세경아울렛2층 258호
화사한 불신상품 대량인고
남·여 20~40%세일 (일부품목제외)
☎ 062)370-9258

한성꽃화원
나주시 나루로71 (송월동 LG화학앞)
근조·축하화환, 동·서양란, 관엽전국배달
☎ 061)334-3200, 010-3623-6921

자연모기발안병원헤어샵
동구 롯데백화점점, 금남전자상가 5층
자연모 넘어 기발 맞춤 전문!
중형기발을 자연모신상품으로 리폼 대어가능
☎ 062)227-8084, 010-3608-2943

석당화랑
동구 공동 예술의거리
병풍, 액자, 족자, 표구일체
고서화 위탁판매
대표 이석재 ☎ 062)222-3118

김동일쉐프
동구 지호로42(지산2동사무소앞구마트앞)
갈비해장국, 갈비탕, 육개장, 곰창전골, 무침조림
예약주문 각종모임환영
☎ 062)228-1975, 010-9622-8938

우리뷔페
남구 지석동 73-5번지
(포충사와 대충동사무소 중간지점)
2월17일 오픈!! 청성파세로운맛으로 보듬어줍니다.
(회사·단체 강부환영)
☎ 062)381-0066, 010-3085-0140

개성전통한방삼계탕
서구 치평동 케이원하이빌 1층
삼계탕전문점
포장가능합니다.
☎ 062)383-3454, 010-2106-0424

천상일월태주명
나주시 남의동33-3번지 남고문뒤편
중합, 사주, 신수, 택일 전문점
☎ 010-2617-3635

대성각중화반점
동구 무등로306-6 (구시창의도로변)
각종 전통 중화요리 전문점
전화주문시 신속배달
☎ 062)430-5342

초대화랑
동구 공동54-2번지(예술의거리)
동양화, 서양화 전문판매점
대표 임해택 ☎ 062)222-2516

광명천막기업
북구 천변우로 285-1(누문동)
패션어닝, 철구조물창고, 차광막, 일반포장
피라솔, 자바라천막, 차호루
☎ 062)526-6153, 010-6646-7282

유가네한우곰팡이 광주대인점
동구 대인동 324-18번지
30년전통 깊은 진한 곰팡이맛!
한우맑은곰팡, 한우사골순대국, 한우사골설렁탕
한우우수육개장 '모든메뉴 포장가능'
☎ 062)464-1425

연아불교용품
전남 나주시 영산포로261-1 (영산포구역앞)
불교용품, 무속용품 모든것
조상웃, 양초 판매
☎ 061)334-0088

남악장례식장
전남 무안군 심향읍 남악로 250번길 59-30
시그니티 요양병원 1층
최신시설완비 친절·신용·분위
각종장례용품업제공
☎ 061)285-0444

국제행복찾기 결혼정보
나주시 동점문길 8(중앙동98-6)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중국
최고의 만남을 추천합니다.
☎ 061)337-7712, 010-5288-3257

박당화랑
동구 공동 51-18번지(예술의거리)
한국화, 서양화매매 및 감정
대표 박환승 ☎ 062)222-6866